

# ‘대장동 수익 은닉 혐의’ 김만배 측근들, 향후 불구속 재판 받아

### 대장동 개발 수익 은닉한 혐의로 기소 김만배와 동문 및 ‘헬멧남’으로 알려진 구속 기한 만기 약 일주일 앞두고 석방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의 최측근 이한성 화천대유 공동대표와 최우항(전 쌍방울그룹 부회장) 이사가 석방, 향후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됐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최 이사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보석은 일정한 보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하고 수감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법원은 지난해 12월16일 두 사람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두 사람은 지난 1월2일 기소

됐는데, 6개월의 구속 기한 만기를 일주일여 앞두고 구치소를 나오게 됐다.

김 부장판사는 이들 두 명에게 보증금 5000만원을 보석조건으로 제시했다. 이 중 2000만원은 변호인, 배우자 등이 제출하는 보석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한 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게 했다. 주거는 주거지로 제한하고, 법원 허가 없이 출국하지 않으며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제출하는 것도 보석 조건에 포함됐다.

아울러 ▲보호관찰소에 신고 후 전자장치 부착 ▲공판 출석 ▲참고인·증인 등 관련자들에게 통화·문자 등 일체의 연락 금지(연락을 받게 되면 그 경위와 내용을 법원에 알릴 의무) 등을 별도 지정조건으로 부과했다.

두 사람은 김씨와 공모해 화천대유 등 계

좌에 입금돼 있는 범죄수익을 수표로 인출한 뒤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지난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합계 245억원을 여러 차례에 걸쳐 고액권 수표로 인출한 뒤, 다시 수백 장의 수액 수표로 재발행 해 대여금고 등 여러 곳에 넣어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더해 최 이사는 2021년 10월께 화천대유 계좌에서 배당금 명목으로 김씨의 계좌로 송금된 30억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가장해 송금·은닉한 혐의도 있다. 재판에 넘겨진 두 사람은 지난 1월 중순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며 각각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보석 심문 과정에서 이들의 변호인은 “검찰이 이미 상당수의 증거를 확보했기 때문에 주관적인 범행 목적 등만 판단하면 된다”며 “김씨가 구속된 것 역시 배임 혐의의 증거인멸 우려 때문이므로 이 사건에선 증거인멸 우려를 상상하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문자메시지 등 이를 범죄수익 은닉으로 볼 정황이 많고 증거인멸 우려가 현존하는 상황”이라며 이 대표와 최 이사의 보석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기도 했



다.

이 대표는 김씨와 성공관대 동문으로, 김씨의 부탁을 받고 화천대유에 합류해 2018년 화천대유 감사, 2019년 1월 천화동인 1호 사내이사를 지냈고 2021년 9월부터는 화천대유 공동대표를 맡아왔다.

최 이사는 지난해 10월 김씨가 구치소에서 석방될 때 오토바이 헬멧을 쓰고 나타나 김씨를 마중해 ‘헬멧남’으로 알려진 인물이

다.

한편 검찰은 지난 4월 최 이사와 이 대표, 김씨의 배우자 등 10명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증거인멸·인멸 교사, 농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기소했다. 김 부장판사는 해당 사건을 기존에 진행 중이던 최 이사, 이 대표의 재판에 병합해 심리하고 있다.

오유나기자



진흙 뚫고 핀 연꽃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된 26일 오전 광주 광산구 삼도동 한 저수지에 연꽃이 피어있다.

## 잠금 설정 연인 휴대전화 염탐 ‘형사처벌 대상’

### 휴대전화 잠금 풀고 전 연인 정보 본 혐의

남자친구의 휴대전화 잠금을 해제한 뒤 전 여자친구의 연락처와 동영상 열람한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한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하진우 판사는 전자기록 등 내용 탐지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벌금 3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란 피고인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지만, 그 정도가 가볍다고 판단되는 범죄에 대해 2년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것을 뜻한다.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되지만(면소),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될 경우 유예한 형이 선고된다.

A씨는 지난 2020년 12월 남자친구 B씨의 휴대전화 잠금을 해제한 후 그 안에 보관 중이던 전 여자친구의 연락처 및 동영상 열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당초 A씨를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서면 심리 등을 통해 벌금형을 내려달라며 법원에 약식기소했지만, A씨가 이에 불복하며 정식재판이 진행됐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B씨가 이전에 휴대

전화 비밀번호를 알려줬기 때문에 비밀침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1심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 판사는 “피해자가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려줬다고 볼만한 명백한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반면, 전 여자친구의 정보가 남아있는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를 당시 여자친구였던 피고인에게 알려준다는 것은 경험칙상에 비춰 이해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 잠금을 해제하고 전 여자친구의 연락처와 동영상을 열람한 것은 명백히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줬다 하더라도, 이는 다른 이성과의 접촉 여부를 불시에 확인할 수 있는 상태로 둔다는 정도의 의미로 보인다”며 “피해자 모르게 휴대전화의 잠금을 해제해 모든 정보를 지독하는 것까지 용인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며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이유를 전했다.

A씨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슬비기자

## 신문인쇄 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주)남도프린테크는 신문사 법인설립, 신문발행업 등록, 편집, 인쇄까지 토탈 서비스 가능한 업체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주·전남 최초로 신문윤전판 출력시스템 도입
- 월등한 색상 구현력에 더러움 현상은 최소화!
- 최상의 인쇄 품질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803번길 93-10(용동) 평동산단 3번도로 끝  
Tel : 062)943-0135~6 Fax : 062)943-0134 담당자 : 010-2656-4747(장상문 전무)